주간 증시 브리핑

2025.12.8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지난주 KOSPI는 2주 연속 반등해 11/18일 이후 두 주 만에 4,000선을 탈환함(4,100p, 주간 +173pt, +4.4%). 주초반 日 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졌으나, 배당세율 분리과세 확정(12/2일)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됨. KOSDAQ도 정부의 활성화 대책 기대 속에 상승함(925p, 주간 +1.3%). 원달러는 달러 약세에도 1,460-7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음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로 사상 최고치(10/29일 6,890pt)에 접근함(S&P500 +0.3%, 나스닥 +0.9%). 日 증시는 BOJ 금리 인상 우려에도 로봇 업종 중심으로 상승함 (닛케이 +0.5%). 中 증시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혼조였음(상해 +0.4%, 항셍 +0.9%).

- **[시장전망]** 11/3일(4,221pt) 이후 -8.9% 하락한 코스피는 하락 폭의 60%를 회복함. 10월 코스피(19.9%) 급등에도 10% 미만의 조정에 그쳤음.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지만, 외국인 투자가들도 5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음.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12월 FOMC 회의 (12/10-11일)
  ② 美 10월 구인이직 보고서(12/10일)
  ③ 中 11월 수출입 (12/8일)
  ④ 美 NFIB 소기업낙관지수(12/9일)
  ⑤ 中 11월 CPI 및 PPI (12/10일)
  ⑥ 美 브로드컴, 코스트코 실적 발표 (12/12일)

구분		12/05	1W	1M
KOSPI	↑	4,100	4.4%	2.4%
S&P500	↑	6,870	0.3%	1.1%
DOW	↑	47,955	0.5%	1.4%
닛케이225	↑	50,492	0.5%	0.6%
상해종합	↑	3,903	0.4%	-1.7%
원/달러(원)	↓	1,469	-0.1%	1.3%
엔/달러(엔)	↓	155	-0.9%	0.9%
국고채3년(%)	↑	2.994	2.991	2.77
국고채10년(%)	↑	3.358	3.344	3.13
미국채10년(%)	↑	4.14	4.02	4.16
WTI(달러/배럴)	↑	60.1	2.6%	0.8%
한5-yr CDS(bp)	↓	22.2	-0.6	-0.8

CHART of the week

日 10년물 금리 추이

1 美 차기 연준 의장 인선 사실상 마무리

비둘기 색채 뚜렷한 해싯, 시장은 독립성 우려

-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해짐. 트럼프 대통령은 12/2일 백악관 회의 도중 해싯 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 칭함
-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1기에서도 CEA 의장을 역임하며 당시 법인세 인하를 주도했음.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음
- 해싯은 일관되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비둘기파임. 지난해 말 해싯은 연준 기준금리가 3%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(현재 3.75~4.0%).
- 월가에서는 재무부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연준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를 표함.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 실세금리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.

2 우에다 BOJ 총재, 12월 인상 신호 (12/1일)

日 장기 금리 급등, 그러나 엔화 강세는 제한

- 우에다 BOJ 총재는 12/1일 나고야 연설에서 "다음 회의(12/19일)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"이라고 언급함. 사실상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.
- 총재는 인플레이션 실현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"환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"라고 덧붙임. 최근 엔화 약세를 의식하는 발언도 등장함.
- 올해 1월 이후 약 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유력해짐. BOJ는 중립금리를 1% 이상으로 보고 있음. 내년에도 1-2회 추가 인상 여지가 있음
- 총재 발언 이후 日 10년물 금리는 2%를 목전에 둠. 그러나 정부부채, 해외투자 영향으로 2024/7월과 유사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.

3 美 11월 ADP 민간 고용 -3.1만 명 감소(12/3일)

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유력, 이후는 불확실

- 美 11월 ADP 민간부문 취업자는 전월비 -3.1만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.
- ADP 고용은 최근 4개월 중 10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감소함. 10월도 도소매업 고용이 일시적으로 큰 폭 반등했으나, 11월에 다시 위축됨.
- 중소기업들의 고용 감축이 집중됨.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가 유력해짐.
- 그러나, 11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2개월 연속 반등함(52.6). 대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심각하지 않음. 12월 이후 2026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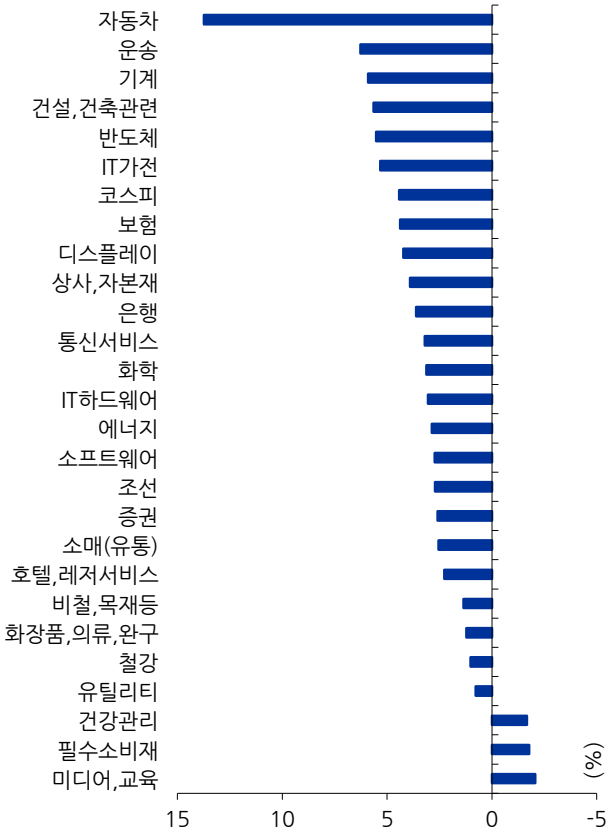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12/1~5일)

대내외 요인 혼재, 변동성 높은 약세 마감

- 국고채 3년물 금리 2.994%(+0.3bp), 10년물 금리 3.358%(+1.4bp) 마감.
-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하며 아시아 주요국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도 급등 출발. 국내 3분기 GDP 확정치 상향 및 대통령의 고물가 언급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도 영향.
- 미국 민간고용 부진 및 완화적 성향을 가진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에 유력하다는 보도, 국내 기관의 저가매수 등으로 상승폭 일부 반납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12/5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12/8~12/12)

美 10월 구인이직보고서 (12/10일) → 구인수요 감소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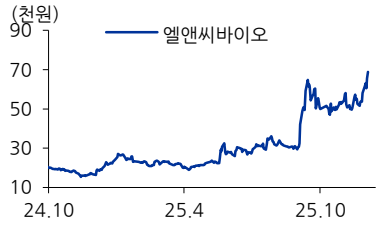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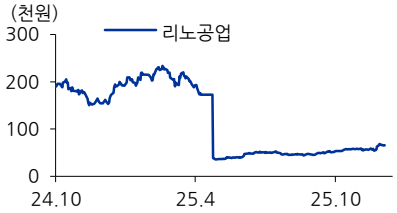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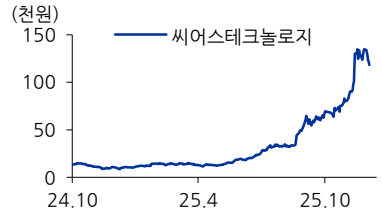
- 미국 10월 구인건수는 700만건 내외로 감소할 전망
- 셧다운 기간 민간의 고빈도 데이터 상 구인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감. 이를 감안하면 10월 구인건수는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
- 대체로 실업률과 구인율이 같아지는 지점부터 해고 위험이 높아지는데, 9월 실업률이 4.4%로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구인율을 상회하기 시작함
- 다행히 구인수요가 빠르게 줄지는 않고 있음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고용 시장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을 전망

美 12월 FOMC(12/11일) → 3회 연속 인하

- 연준은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3.50~3.75%로 추가 인하할 전망
- 셧다운 탓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, ADP 고용 등 대리 지표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.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.
- 그러나 지난 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, 내부 분열은 10월 보다도 더 커질 전망. 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향후 가이던스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임.
- 고용 위축에도 AI 투자 등에 뚜렷한 경기 침체 전조는 없음. 내년 연준의 추가 인하는 새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.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12/8 (월)	▪ 中 11월 수출 (C: +3.9%yoy, P: -1.1%yoy)	▪ RBA 통화정책회의 (~9일)
12/9 (화)	▪ 美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(P: 98.2pt)	
12/10 (수)	▪ **美 10월 구인이직보고서** (P: +722.7만 명) ▪ 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(C: +0.7%yoy, P: +0.2%yoy) ▪ 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(C: -2.0%yoy, P: -2.1%yoy) ▪ 韓 11월 실업률 (P: 2.6%)	▪ **美 FOMC 회의 (~11일)** ▪ [실적발표] 美 시놉시스, 레나
12/11 (목)		▪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▪ 韓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▪ [실적발표] 美 코스트코, 어도비, 시에나, 룰루레몬, 브로드컴
12/12 (금)		▪ 韓 코스피200, 코스닥150 정기변경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의료기기	엘앤씨바이오	58,000 (11월 28일)	+18.6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72.1 / 86.5 / 118.5 영업이익 2.5 / 6.2 / 18.9 순이익 141.0 / (79.0) / 30.2 PER (배) 3.9 / - / 118.6	▪ 리투오 매출 연간 가이던스 상향(30억 → 50억)에 따른 탑라인 증가 ▪ 리투오의 수익성이 높아 (opm 50%) 전사 영업이익률의 가파른 개선 (3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. 별도 opm 22%, 연결 opm 13%) ▪ 메가덤플러스 중국 판매 계약 연내에 마무리 될 예정. 내년부터 중국법인 매출 발생될 것으로 전망
반도체 부품	리노공업	68,300 (11월 28일)	-4.2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278.2 / 364.8 / 430.4 영업이익 124.2 / 169.9 / 204.0 순이익 113.3 / 142.2 / 170.8 PER (배) 25.8 / 34.9 / 29.1	▪ ASIC 시장 성장 및 TPU 볼륨 확대로인한 고성능 IC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기대감 유효 ▪ 4분기는 대면적, 신규 모바일 및 AI 칩 관련 소켓 매출이 지속 증가하며 비수기 효과를 상쇄할 것 ▪ 26년 2나노 등 선단 공정 비중 증가에 따라 집적도 향상 → ASP 증가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
Mobility/EV	현대오토에버	202,000 (11월 28일)	+40.3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3,713.6 / 4,173.8 / 4,667.9 영업이익 224.4 / 260.4 / 303.4 순이익 175.2 / 198.7 / 239.5 PER (배) 20.3 / 40.0 / 33.2	▪ 관세 영향으로 26년 완성차 실적 부담 여전. 강한 실적 반등보다는 투자 싸이클(자율주행, 로보틱스, 스마트팩토리)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 ▪ 보스턴다이나믹스 26년 CES에서 뉴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 공개 예정. 27년 양산 일정 및 배치 계획 발표 있을 것 ▪ 현대오토에버 로봇 관제 시스템 및 데이터 센터 관리 담당하며 로보틱스, 스마트팩토리, AI 투자 확대 수혜주로 추천함
화장품	에이피알 (278470)	219,500 (11월 14일)	+15.9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722.8 / 1,435.7 / 1,949.7 영업이익 122.7 / 343.5 / 479.4 순이익 107.6 / 279.7 / 387.2 PER (배) 17.6 / 33.3 / 23.9	▪ 미국 얼타뷰티 25년 하반기 전매장 입점 하였음. 분기별 재주문량 증가로 26년 매출 상승 견인할 전망 ▪ 기존 현지 마케팅 진행되지 않고 성장했던 유럽, 독일 영국 등 주요지역 마케팅 진행하며 성장 본격화될 것 ▪ 올해 11~12월 세일 행사 호실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상향 가능성
바이오/제약	씨어스테크놀로지 (458870)	130,000 (11월 14일)	-8.9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8.1 / 39.9 / 74.0 영업이익 (8.7) / 9.9 / 25.0 순이익 (8.9) / 9.5 / 23.2 PER (배) - / 228.4 / 66.7	▪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.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(씽크), 심전도 분석 솔루션(모비케어) 판매 고성장 중 ▪ 영업레버리지 효과 나타나며 실적 고성장 예상. 2025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전환하였으며,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 30% 전망 ▪ 2025년 내 FDA 승인 후 2026년 미국, 중동 출시 계획 중. 해외 진출 성과 가시화 기대